

농어촌공사 공주시사,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

윤 조흥기 기자 | 승인 2025.03.05 11:40



위험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 게시

[충청뉴스 조흥기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(지사장 박재근)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펼쳤다.

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·전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,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.

따라서 공주시사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, 위험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

위험요소를 점검 후 긴급 조치하는 사진

공주시사 관계자는“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대책시설 확충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농어촌공사 공주시사,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

✎ 이견용 기자 | ⓒ 승인 2025.03.05 15:48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.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활동에 나섰다.

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·전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,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.

따라서 공주시사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, 위험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박재근 공주시사장은 “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대책 시설 확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,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

✎ 이효섭 기자 | ⓒ 승인 2025.03.06 14:07

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6일 펼쳤다.

특히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·전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,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.

따라서 공주시사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, 위험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박재근 지사장은 "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대책시설 확충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,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

입력: 2025.03.05 15:57 / 수정: 2025.03.05 15:57



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관계자가 관내 저수지의 위험요소를 점검 후 긴급 조치하고 있다. /공주시사

[더팩트 | 세종=김형중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해빙기를 맞아 관내 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.

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·전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,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.

공주시사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, 위험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박재근 지사장은 "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대책시설 확충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tfcc2024@tf.co.kr